

너만 아니면 돼!

개학을 했다. 아빠가 다녀간 지 사흘만이였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아빠는 남해안 어딘가에 서 다리 공사를 하느라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올까 말까 했다. 아빠는 여름이 가기 전에 온 가족이 수영장에 한 번 더 다녀와야 한다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집에 왔다. 하지만 피곤한 얼굴로 실외 수영장에 가서 반나절 동안 놀다 온 뒤에는 줄곧 잠만 자다가 갔다. 그래도 나는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았다.

9월이라고 해도 무더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더위를 피하려고 방학을 하는 거니까 아예 한 달쯤 더 지나서 개학을 하면 좋겠다.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개학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재미없고 피곤한 일만 생길 게 뻔한데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할 사람이 있다면 분명 이 누나처럼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일 것이다.

"야호, 오늘부터 내가 방학이다"

엄마는 드러내놓고 좋아했다. 내가 집에 없는 게 그렇게 좋은가!

"로운아, 누나 스쿨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주고 가."

엄마가 먼지떨이로 책장 위를 탈탈 치면서 말했다. 또 시작이다. 나는 아침부터 누나와 나란히 걷고 싶은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게다가 누나는 특수학교 스쿨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을 눈감고 찾아갈 만큼 험히 알았다.

"누나 혼자서도 잘 가는데 뭘"

"그래도 네가 같이 가면 좋잖아. 어차피 학교 가는 길이니깐 잔말 말고 가."

"피"

입을 부루통하게 내밀고 싫은 표를 냈지만 엄마는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독수리같이 매서운 눈초리로 내내 쳐다보았기 때문에 후닥닥 출행량을 칠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누나랑 나란히 대문을 나섰다.

"로운이 너, 집에서 나가자마자 누나 내팽개치고 달아나면 안 돼!"

"알았으니까 걱정 마"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다. 누나가 쫄래쫄래 따라왔다. 아침마다 골목 끝까지 따라오던 망치 같았다. 누나도 골목 끝까지만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좋을 텐데.

망치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었다. 벌써 보름이나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망치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누나가 혼자서 망치를 데리고 나간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동네 놀이터라지만 주변의 도로는 꽤 복잡했다. 근처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와 대형 할인점에 드나드는 차까지 종종 그곳을 지나갔다. 골목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들 때문에 차가 요란하게 급정거를 하는 일도 잦았다. 차들이 속도를 내지 않아서 대부분 별 탈이 없었지만 망치는 달랐다. 망치 같은 개한테는 달팽이보다 작고 느려 터진 차도 아주 위험했다.

나는 허락도 받지 않고 망치를 데리고 나간 누나와 그런 누나를 내버려 둔 엄마까지 다 미웠다. 엄마가 따라 나가기만 했어도 망치가 제멋대로 뛰어다니다가 차에 치이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화가 끓어올랐다.

"야, 너 혼자 갈 수 있지? 난 뛰어갈 거니까 알아서 가. 엄마한테 이르면 알지?"

골목 끝까지 갔을 때 나는 돌아서서 무뚝뚝하게 말했다.

"안 일러. 이르는 거 나빠"

누나는 겁에 질린 얼굴로 대꾸했다. 그럴 때 보면 누나는 영락없이 다섯 살 배기 어린애였다. 그래서 골치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다루기가 쉬웠다. 누나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조금 미안했다. 망치 일만 아니었다면 정류장까지 그냥 가 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누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누군가를 원망하듯이 나를 바라보던 망치의 마지막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것은 복수를 부탁하는 눈빛이었다. 그때 난 망치를 죽게 만든 누나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나는 쏜살같이 골목을 빠져나가 큰길로 내달렸다. 모처럼 아이들이 북적대는 거리는 활기가 넘쳐 보였다. 어느 새 속생겼던 마음이 사라지고 가슴이 설레었다. 등갓길에 설레는 기분이 들다니 별일이었다. 이 학기 땀 재미난 일이라도 생기려나! 마침 된장잠자리 한 마리가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잠자리나 몇 마리 잡아서 갈까?"

어차피 나는 반에서 일찌감치 지각대장으로 찍혀 있었다. 일 학기 내낸 이틀이 멀다 하고 지각을 해서 선생님도 포기한 터였다. 나는 개구리를 잡으러 다니거나 강가에서 꼬챙이로 강바닥을 수시며 물고기를 찾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학교로 가곤 했다. 그때쯤이면 대부분 일 교시 수업이 반 이상이나 지나가고 있었다. 어떤 날은 일 교시 수업이 끝나고 이 교시 수업으로 넘어간 적도 있었다.

선생님은 얼마난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하고, 엄마까지 불러서 나의 지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나는 선생님의 잔소리 몇마디에 신경 쓰는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나를 징그러운 벌레 보듯이 하고,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따가운 눈총을 보냈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개구리나 물고기를 잡는 게 훨씬 좋았다.

"그래도 개학 첫날인데 제 시간에 가 줘야지"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신발주머니를 휘휘 돌리면서 가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힐끔거리며 나를 피했다. 신발주머니가 공중에서 돌 때마다 웅웅 소리가 나는 게 재미있었다.

"로운아!"

누군가가 등 뒤에서 나를 와락 덮쳤다. 대광이었다. 녀석을 생각 없이 달려들다가 내 신발주머니에 얼굴을 맞았다. 그래도 뭐가 좋은지 계속 실실거렸다. 성격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좋은 녀석이다. 선생님은 우리 둘을 묶어서 "꿀통들'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대광이가 있어서 그나마 학교에 다닐 맛이 났다. 대광이는 잘 씻지도 않고, 옷차림이 후줄근해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았지만, 내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고 비행기 소리를 내면서 아이들 사이를 뚫고 달려갔다. 간간히 우리 반 여자애들이 눈에 띄었다. 여자애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흠 그런다고 누가 눈이나 깜박할 줄 알고!

"호박들아, 감자나 먹어라!"

나는 여자애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는 잽싸게 내달렸다. 대광이가 "히힃" 하고 괴상한 소리로 웃으면서 쫓아왔다.

감자를 먹은 여자애들은 아침 내내 교실에서 독기를 내뿜으며 나를 노려봤다. 오랜 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장난 좀 친 걸 갖고 유난스럽게도 군다. 나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나운 눈길을 다 받아 주었다.

들뜨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걷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것도 낼 게 없었다.

"어이구 , 이 꼴통아! 널 어쩌면 좋으냐!"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지휘봉으로 내 머리를 한 대 툅 치고 지나갔다. 그 지휘봉은 선생님이 처녀 시절부터 이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보물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그 보물에 스치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여기라고 할 만큼 지휘봉을 아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영광을 눈곱만큼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옆 모듬에 앉아 있는 대광이도 나랑 비슷한 말을 듣고, 선생님이 내리는 영광을 한 번 누렸다. 도대체 방학 숙제 같은 건 왜 내 줘서 개학 첫날부터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지 모르겠

다.

숙제 걷는 일이 끝난 뒤에는 짹을 새로이 정했다. 우리는 두 줄로 길게 선 다음에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두 개의 항아리에서 쪽지를 한 장씩 꺼냈다. 여자애들은 빨간 항아리, 남자애들은 파란 항아리였다.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백희랑 재령이, 나연이가 옆에서 수군거렸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자꾸만 내 쪽을 힐끔거렸다.

"야, 너희들, 왜 사람을 자꾸 훑쳐 봐! 나랑 짹 되고 싶어서 그래?"

내 말에 대광이가 피식 웃었다. 여자애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다가 셋이 똑같이 토하는 시늉을 했다.

"웃기시네. 우린 너만 아니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중이었어"

"싫으면 말라지. 누군 너희들하고 짹 하고 싶었냐?"

하지만 나는 셋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백희랑 짹이 되었다. 내가 '바보 온달'이라고 적힌 쪽지를 뽑고, 백희가 '평양공주'를 뽑았기 때문이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니! 내가 어딜 봐서 바보 온달이야! 그래도 나중에 훌륭한 장군이 되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옆에 앉은 평강공주는 내내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광이는 '호동왕자'를 뽑아서 '낙랑공주' 금주랑 짹이 되었다. 금주도 백희만큼이나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백희는 첫 수없이 지나도록 말 한 마디를 건네지 않았다. 나도 그랬다. 쉬는 시간에 재령이랑 나연이가 쫓아와서 "어떡하니!", "너 참 안 됐다" 하면서 백희를 위로했다.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그 야단인지 모르겠다. 백희가 책상에 엎드려서 울기까지하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나마 새 짝과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 못된 계집애들. 뜬금없이 망치가 보고 싶었다. 이럴 때 초콜릿 하나만 먹으면 딱 좋으련만.

"금요일에 이 학기 반장을 새로 뽑을 거예요. 모두들 어떤 사람이 우리 반 반장이 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선거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집에 갈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이 교탁을 탁탁 치면서 말했다. 교실은 순식간에 술러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흘 동안은 선거 얘기로 학교 전체가 들썩이게 생겼다.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새 반장에 대해 궁금해 했다. 벌써부터 내놓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는 일 학기 때 반장인 제하도 있었다.

황. 재. 하.

진짜 황제라도 된 양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반장.

어떤 아이들은 제하가 이 학기에도 계속 반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이제 녀석이 거들먹거리며 '반장입'네' 하고 설치는 꼴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반장 선거라는 말이 반갑기까지 했다. 일 학기 반장이 이 학기 반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지 못하게 한 규칙은 참 마음에 들었다.

"넌 누가 반장이 되면 좋겠냐?"

나는 백희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미우나 고우나 한 달 동안은 꼬박 붙어 지내야 하는데 계속 똥하게 입을 다물고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마음 넓은 내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수밖에. 그리고 보면 난 참 괜찮은 녀석이다. 흐흐.

"너만 아니면 돼!"

백희가 차갑게 말했다. 숨이 턱 막혔다. 살짝 녹았던 마음이 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오늘날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내가 언제 반장 선거에 나간다고 했어?"

"알아. 나간다고 해도 누가 너 같은 애를 뽑아 주거나 한대?"

백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계속 내 속을 후벼 찔렀다. 여자애들이 나한테 그러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개학 첫날부터 제멋대로 구는 백희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난 참을성이 많지 않았다.

나는 눈이 찢어져라 백희를 노려보다가 발을 높이 들어 올려 아래로 콧 내리찍었다.

"아아악"

백희가 발을 움켜잡고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일흔 개 가까이 되는 눈들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얼굴이 뜨거웠다. 그래도 내 행동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어디까지나 나는 백희의 잘못을 심판한 것뿐이다.

영동한 계획

"이로운, 넌 정말 이름이 아깝다. 친구들한테 이롭기는 커녕 왜 그렇게 해로운 짓만 골라서 하니? 넌 아무리 봐도 '이로운'이 아니라 '해로운'이다, '해로운'"

선생님은 내가 왜 그랬는지는 묻지도 않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해로운'이래. '해로운'"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킁킁대다가 내가 눈을 치뜨고 노려보자 얼른 고개를 돌렸다. 나는 벌써부터 몇몇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들 양값음을 당할까 봐 겁이 나는지 내 앞에서는 조심했다.

"뭘 잘했다고 눈을 치뜨고 그래? 당장 백희한테 사과하고, 별로 다른 애들이 나간 뒤에 교실 정리하고 가도록 해"

"네"

나는 퐁퐁 부은 얼굴로 대답했다. 아이들이 우당탕탕 밖으로 빠져나갔다. 선생님도 서류를 주섬주섬 챙겨서 교무실로 갔다. 대광이가 나를 거들어 주겠다면 교실에 남아있었다. 나는 교실을 휘둘러보았다. 크게 정리할 것도 없었다. 의자가 삐죽삐죽 나와 있긴 했지만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쓰레기통 옆에 종이 조각 서너 장이 떨어져 있는 것도 귀찮아서 모른 척했다.

그래도 청소함 옆에 대걸래가 쓰러져 있는 건 바로 세워 놓았다. 대광이가 의자를 몇 개 집어넣고, 쓰레기도 주웠다.

"이만하면 됐지!"

우리는 가방을 들고 복도로 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제하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말고 빙글빙글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녀석과 마주하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다. 잘난 척하는 자식들은 다 밥맛이다. 그런데 녀석이 나를 불러 세웠다.

"야 해로운!"

"뭐야?"

나는 주먹을 움켜쥐고 핵 돌아섰다. 누구든자 날 먼저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내 인생 철학 중 하나이다. 대광이가 나와 제하를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제하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여전히 보기 싫게 웃고 있었다.

"선생님이 너보고 '해로운'이라고 하셨잖아. 다른 애들도 그렇게 부르는데 몰랐냐?"

"너 정말 한 대 터지고 싶어?"

녀석은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내 주먹 앞에서도 절대로 기 죽지 않는 유일한 놈이다.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 겁난대? 그래 봐야 너만 또 선생님한테 혼날 게 뻔한데 뭐. 넌 정말 그렇게 살고 싶냐? 난 너처럼 꼴통취급 받으면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닐 것 같은데"

제하는 작정한 듯 계속해서 약을 올렸다.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녀석에게 달려들자 대광이가 말렸다. 마침 옆 반 미술 선생님이 복도로 불쑥 나오는 바람에 나는 슬그머니 주먹을 내려야만 했다. 그 틈에 제하는 혀를 날름 내보이며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로운,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하려고 어정거리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얼른 가"

미술 선생님은 대광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내 머리에만 알밤을 꽂 먹였다. 왜 다들 나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씩씩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제하는 그새 어디로 달아나 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걸리기만 하면 제대로 손을 봐 주려고 했는데 글렀다. 선생님이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녀석은 아무한테나 꼴사납게 구었다. 하늘까지 솟은 그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줘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듯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개학 첫날부터 이게 뭐야!"

이 학기도 일 학기와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에 맥이 쪽 빠졌다. 남아있는 4학년의 나날들이 끔찍했다. 아니, 남아 있는 학교 생활이 전부 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주글주글하게 느껴졌다. 내가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오고, 답답한 마음을 다 털어놔도 묵묵히 들어주던 망치만 있었어도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망치는 이제 세상에 없고, 난 재미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하루 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대광아, 나 학교 때려치울까? 전에 어린이신문에서 얼핏 보니까 학교에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애들도 있다던데"

"야 꿈도 꾸지 마라. 너희 엄마가 그러라고 하시겠냐?"

하긴 그 말이 맞았다. 아빠라면 몰라도 엄마는 나를 가르치느니 차라리 직접 책가방을 매고 학교에 다니겠다고 할 분이였다.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 신발주머니를 휘돌리면서 걸어갔다. 대광이랑 장난을 치면서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로운아 나도 반장 선거나 나가 볼까?"

대광이가 불쑥 말했다.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 걸 보니 그냥 해보는 소리 같았다. 녀석은 이따금 엉뚱한 일을 벌여서 아이들을 웃기곤 했다.

"그럼 나도 나가 볼까? 너랑 나랑 나란히 반장, 부반장이 되면 재밌을 텐데"

내가 재미 삼아 맞장구를 쳐 주자 대광이는 신이 났는지 킁킁대고 웃었다. 나도 웃었다.

"좋았어 네가 반장이 되면 내 축구화를 한 달 동안 빌려 줄게. 대신 내가 반장이 되면 네 게임기를 빌려 줘"

대광이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말했다. 아주 입맛 당기는 제안이었다. 나는 전부터 대광이의 축구화를 갖고 싶어 했고, 대광이는 내 게임기를 탐냈다.

"좋아 나중에 판소리하기 없다"

우리는 마치 다른 후보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것처럼 터무니없는 꿈에 부풀어 시시덕거렸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반장이 된다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됐다. 나나 대광이를 찍어줄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도 꿈꿀 자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대광아 선거할 때 네가 먼저 날 추천해 줘 그럼 내가 널 추천할게"

"그래 그리고 우리, 서로 뽑아 주는 거다. 한 표 더 얻겠다고 비겁하게 자기 이름 쓰면 안 돼"

"알았어 걱정 마"

우리는 굳게 약속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갔다. 적어도 한 표는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다.

"엄마 나 반장 선거 나갈 거야"

솔직히 반쯤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 반장에 꼭 뽑히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저 내가 몇 표나 얻을 수 있을지 궁금했고, 나를 깔보는 애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을 해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엄마의 반응이 기가 막혔다.

"네가 반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피식 웃기까지 했다. 도대체 날 뭘로 보고. 엄마부터 나를 무시하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보는 거다.

"그래 나갈 거야 반장이 뭐 별거야? 나 같은 애는 나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나는 약이 올라서 소리를 꺾 질렀다. 옆에 있던 누나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 반에도 반장 있어 명찬이 반장"

"뭐? 멍청이 반장이라고? 그래 멍청이들만 모여 있는 반에 딱 맞는 반장이네"

나는 엄마에게 들으라는 듯이 비아냥대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쿵 닫아 버렸다. 밖에서 또다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로운아 반장 나가 내가 뽑아 줘"

젓 코웃음이 절로 났다. 이럴 때 보면 누난 정말 바보다. 그래도 누나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싫지는 않았다.

나는 책상 서랍에 깊숙히 숨겨 두었던 초콜릿을 꺼내어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초콜릿을 먹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울적한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 엄마 때문에 화났던 마음도, 학교에서 선생님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들었다.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나는 초콜릿을 먹을 수밖에 없다. 초콜릿이 없었더라면 난 벌써 심장이 터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입 안 가득히 달콤한 향이 퍼지는 초콜릿을 오래도록 꼭꼭 씹어 먹었다.